

나이지리아 내 권력다툼, 정치적 재건 및 나이지리아 제4공화국 국내문제

Duruji, Moses Metumara Covenant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nior Lecturer

주요내용

- ▶ (현황)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나이지리아에서는 민족 및 종교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국내문제는 나이지리아 내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 (원인과 분석) 식민지 독립 이후, 나이지리아는 민족 집단 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연방제를 채택하였음. 그러나 쿠데타를 통해 북부 세력이 권력 장악에 성공함에 따라, 북부 세력에 유리한 국가 구조가 형성됨. 이러한 왜곡된 구조의 개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취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 ▶ (전망과 시사점) 나이지리아 내에서는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나이지리아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

1. 이슈 현황

▶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나이지리아에서는 민족 및 종교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문제는 나이지리아 내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해결이 어려움.

- 나이지리아는 종교적 분파(religious lines)에 따라 독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에도 민족과 종교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질적인 집단들의 권력다툼은 종종 극단적인 갈등상태를 유발하며,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나이지리아 연방 체계를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 권력다툼에서 승리한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이지리아 내부구조가 형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연방 기관에의 접근 가능성뿐만 아니라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 자원 통제, 그리고 세입교부의 면에서도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국가 구조는 국내문제로 지칭될 수 있는 나이지리아 내부적 문제의 근원임.

- 체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 통치 체제에 대한 저항적 태도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음.
- 그렇다면 왜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는 특정 세력이 권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형성된 나이지리아의 구조적 특성 때문임.
- 특정 집단에게 편향된 특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체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묵살되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긴장과 갈등이 발생함.

그림 1. 나이지리아 민족 집단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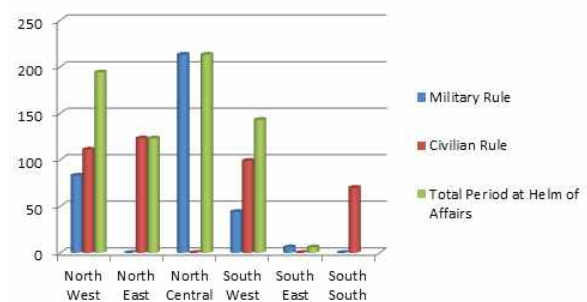
표 1. 남북 간 권력분포

(단위: 건수)



자료원: 저자, 2017

표 2. 지정학적 지역별 권력분포



자료원: 저자, 2017

2. 원인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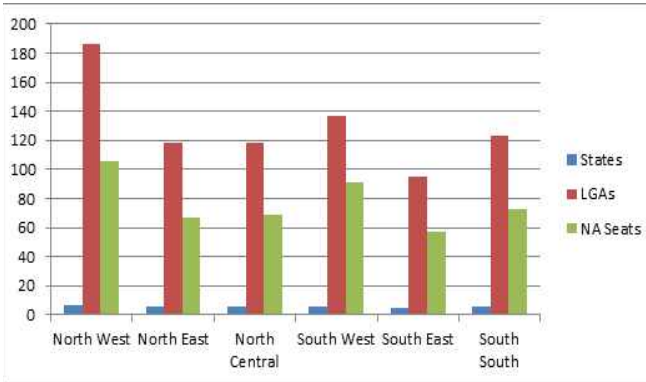
- ▶ 식민지 독립 이후, 나이지리아는 민족 집단 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연방제를 채택하였음. 그러나 쿠데타를 통해 북부 세력이 권력 장악에 성공함에 따라, 북부 세력에 유리한 국가 구조가

형성됨. 이런 왜곡된 구조의 개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취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식민통치기 당시 다양한 민족 집단을 통합하는 데 실패함. 결과적으로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이질적인 집단 간 반목이 심화되었는데,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써 나이지리아는 연방제를 채택함.
 - 나이지리아는 다양한 민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나이지리아의 국내 문제는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 어떻게 단일국가를 구성하여, 규율하고 통합하는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집단들에게 자치권을 보장하는지와 관련됨.
 - 즉, 나이지리아의 국내문제는 소외, 지배,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부조리를 경계하는 민족 간의 다툼에서 유발되는 긴장이나 모순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나이지리아는 대영제국이 강압적으로 식민지화한 국가인데, 식민지 기간 내내 토착 행정체제는 식민지화 이전에 형성된 독립적인 민족집단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집단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지 못했음.
 - 이는 나이지리아의 식민통치기 당시 정당발전사와도 관련됨. 당시 “오두두와의 후손(Egbe Omo Oduduwa)”라는 공동체 기구는 “액션 그룹(Action Group)”이라는 정당으로, 또 “잠마이안 무탄넨 아레와(Jamyyan Mutanen Arewa)”라는 공동체 기구는 “북부 인민회의(Northern Peoples Congress)”와 같은 정당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식민통치기 정당들이 민족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설립되었음을 보여줌.
 - 상기 정당들의 활동은 식민지 해체기 당시 나이지리아 내에 뿌리 깊은 민족 간 불신과 경쟁 구도가 형성되도록 했음.
 - 나이지리아 내 민족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을 잠재울 필요가 존재함에 따라, 나이지리아는 연방제의 형태를 갖춘 국가로서 독립하게 됨.
- 식민지 독립 이후 나이지리아의 국가 구조는 쿠데타로 권력을 획득한 북부 세력에게 유리하게 형성.
 - 식민지 독립 이후 국가 자체는 강력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3대 주요 민족 집단의 경쟁이 격렬하였음.
 - 결과적으로 상대 지역 정당을 앞서려는 각 지역 정당들의 시도가 국가 내 긴장과 위기를 유발시켰으며, 1966년 1월 첫 군사 쿠데타가 발생함. 쿠데타의 결과로 이그보우(Igbo)족이 국가를 통치하게 됨.
 - 북부 지역 군대가 이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나이지리아는 내전상태로 돌입하였고, 동부 지역에서는 비아프라 공화국이 설립되면서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이 자행되었음.
 - 내전 종식 이후, 북부 지역 군대가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 북부 세력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주 정부 및 지방정부 구역을 획정하고, 자원을 통제하였으며, 세입을 교부하고, 대표권을 설정하였음.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연방제는 왜곡됨.
 - 현재의 제4공화국 체제하에서 탄생한 1999년 헌법조차도 왜곡된 부분을 합법이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의 시행이 어려운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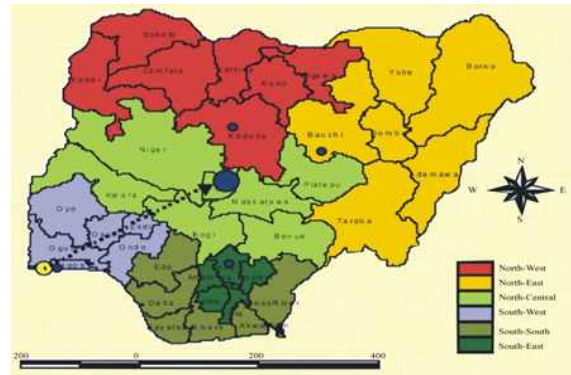
- 연방 기구 채용 및 승진에서의 쿼터 시스템 관련 조항, 소외계층의 대학이나 연합학교에의 입학 관련 조항, 우수한 인사 대신 평범한 인사를 지명하는 연방제적 성격 관련 조항들은 북부 세력에게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들이라 할 수 있음.
- 제4공화국 체제 하에서도 정치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조치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 상기 사항들은 모두 나이지리아가 권력 축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특히 중앙정부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격렬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제4공화국의 정치적 역학 하에서, 특히 권력의 순환을 지지하는 인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 PDP)이 등장하면서 1999년에는 남부출신 인사인 올루세군 오바산조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됨.
 - 그러나 관료들은 나이지리아 정치체계에 내재된 불평등과 부조리함을 지적하면서, 국내 문제를 만 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함.
 - 하지만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요구에 응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해당 요구는 현실화될 수 없었음.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요루바족 자경단 (Odua People's Congress, OPC), 비아프라 분리운동조직(Movement for the Actualization of Sovereign State of Biafra, MASSOB), 비아프라 독립운동조직(Biafra Independent Movement, BIM), 비아프라 원주민 조직(Indigenous People of Biafra, IPOB), 니제르델타 해방운동(the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MEND), 니제르델타 어벤저스(the Niger Delta Avengers, NDV), 보코하람(Boko Haram), 그리고 풀라니 목동 민병대(Fulani Herdsmen militia)와 같은 군사 조직이 형성됨(Ugwu, 2016).
- 일부 정치적 엘리트들은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이런 시도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역 부족이었음.
- 남아프리카 진실 위원회 개최 이후에 설치된 오푸타 패널, 오바산조 행정부가 개최한 국민대토론회, 그 리고 굿럭 조나단이 주도한 2014년 국내회의(2014 National Conference)와 같은 국내 회의체의 조직 을 통해 국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존재하긴 했으나, 정치적 엘리트들의 시도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엔 역부족임.

표 3. 지역별 중앙정부, 지역정부, 국회 의석분포 현황



자료원: 저자, 2017

그림 2. 나이지리아 지역별 지도



자료원: Nairaland, 2015

3. 전망과 시사점

▶ 나이지리아 내에서는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나이지리아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 나이지리아는 내전 이외에도 극심한 권력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붕괴 직전에 이름.

- 문제를 해결하려는 허울뿐인 시도의 결과로 회의기구만 창설됨. 실제로 2014년에 나이지리아 내에서는 '2014년 국내 회의'가 총 17번 개최됨.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이 있긴 하지만, 이 권고안의 실행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2015년에 정권을 장악한 모하마드 부하리는 공식적으로 2014년 국내 회의의 권고안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그러나 모하마드 부하리 정권 하에서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자원 지정과 분배 부문에 관한 어젠다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현상유지적 태도와 재구조화 요구를 묵살하는 태도는 확실히 나이지리아의 국가적 위기의 전조라 할 수 있음.

- 현 실정상, 나이지리아의 정치 및 경제적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진보적이지 않음.
- 재구조화에 반대하는 집단은 재구조화를 시도하면, 현재의 단일경제구조 및 젓병 연방주의¹⁾ (feeding bottle federalism)하에서 기득권이 보유한 특권과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구조화에 반대하는 실정임.

1) 나이지리아 상원 부의장 이케 에퀴레마두(Ike Ekweremadu)이 나이지리아 연방주의가 유아처럼 의존적이라고 표현한 데 유래함.

- 그러나 내전 및 분리주의 운동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국내 문제 해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가를 중대한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음.

▶ 수년간 지속된 나이지리아의 왜곡된 연방주의는 권력다툼을 파생시킴; 즉 권력 획득이 최종적인 목표가 됨. 그러나 체제는 비생산적인 상태임. 비록 체제의 재구조화를 반대하는 집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이런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EMERiCs**

참고문헌

- Abuh, Adamu, Charles Gaffee Gyamfi & Tunji Omoleye(2017) Why North is Uncomfortable with Restructuring” The Guardian May 22 <https://guardian.ng/news/why-north-is-uncomfortable-with-restructuring/>
- Ayatse, Felicia H & Akaya, Isaac I (2013)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Ethnic Politics and its Impact on Post-Colonial Governance in Nigeria” European Scientific Journal, Volume 9, No 17 pp.178-189
- Ayodele, Jimoh (2006) The Concept of National Question| in Hassan .Saliu A, Ayodele Jimoh & Tunde Arosanya eds. The National Question and Some Selected Topical Issue in Nigeria. Ibadan: Vantage Publishers pp. 3-14
- Duruji, Moses M(2008) The Changing Context of Ethnicity in Nigeria” Unilag Journal of Politics, Volume II Rainy Season pp.77-103
- Olugbile, Femi (2015) The National Question and the Many Nationalities of Nigeria” The Nation April 19 <http://thenationonline.ng/the-national-question-and-the-many-nationalities-of-nigeria/>
- Ufeli, Evans (2016) “The Nigerian State and the National Question” Happenings, August 13, <http://happenings.com.ng/127963-2/>
- Ugwu, Emmanuel (2016) Interrogating Restructuring in Nigeria” The Sun July 18 <http://sunnewsonline.com/interrogating-the-restructuring-of-nigeria/>

💡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